

조천리의 지리적 환경과 조천진성·연북정의 역사지리적 평가

정 광 중*·강 성 기**

1. 위치와 면적

조천리는 제주도 북동쪽에 위치한 조천읍의 10개 법정리 중 하나이며 조천읍에서 정북방향에 자리 잡고 있다. 수리적 위치로 보면, 동경 126°35'와 126°40'사이, 북위 33°23'와 33°33'사이로 나타난다. 조천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동쪽으로는 함덕리와 신흥리, 서쪽으로는 신촌리, 남쪽으로는 대흘리와 와흘리, 북쪽으로는 해안과 접해있다(그림 1). 조천리는 제주시에서 동쪽으로 약 12km 떨어져 있으며 차량으로 20분 정도면 도착하는 제주시의 근교지역이다. 또한 조천읍에서 신촌리, 신흥리, 함덕리와 함께 해안을 끼고 있는 반농반어(半農半漁) 마을이라 할 수 있다.

조천리의 면적은 2012년 8월 현재 7.5km²로 조천읍 소속 10개의 법정리 중 신흥리(1.1km²) 다음으로 작으며, 조천읍 전체 면적의 약 5%를 차지한다. 조천읍 내에서 조천리와 비슷한 크기의 마을로는 북촌리(7.8km²)와 신촌리(7.9km²)가 있다.



〈그림 1〉 조천리 위치

자료: <http://jejuvill.net>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교수 ** 제주대학교 초등사회과교육전공 박사과정

조천리의 지목별 면적현황은 <표 1> 과 같다. 여러 지목 중에서는 밭이 2.75km²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과수원(1.74km²), 임야(1.70km²), 대지(0.43km²), 묘지(0.13km²) 순으로 차지한다. 여기서 밭과 과수원이 전체 면적 중 60.1%를 차지한다는 점은 조천리 마을 주민들이 주로 농업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표 1> 조천리 지목별 면적 현황(2012년)

(단위 : m²)

밭	논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대 지	공장용지
2,758,919	982	1,742,044	18,122	1,703,362	433,489	12,505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제방	하천
9,974	1,103	2,886	39,113	467,538	909	0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754	60,742	5,887	197	0	11,930	0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합 계	—	—
12,310	0	138,021	51,970	7,472,757	—	—

자료: 제주시청 내부자료(2012).

2. 기후와 지형적 특징

제주도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하여 몬순(monsoon) 영향을 많이 받는 동안기후의 특징을 보이는 동시에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양성기후의 영향도 크게 반영되어 나타난다. 또한 한라산과 쿠로시오 해류로 대표되는 기후인자의 영향으로 한반도와는 상이한 기후를 형성하는 동시에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도 한다. 제주도의 지역별 기후자료는 24개소에서 측정한 기상관측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조천리의 개별적 기상관측 자료가 없는 상황 속에서 마을단위의 기후나 기상상황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제주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조천리의 기후를 살펴보면, 연평균기온은 15~16℃, 연평균풍속은 3~4m/s, 연강수량은 1400~1500mm 정도로 파악된다(제주지방기상청, 2010: 24-27). 제주도 북부지역은 겨울에 서고동저형 기압배치로 출현하는 탁월풍인 북서풍이 연중 최다풍을 이루는 반면, 봄과 가을의 탁월풍은 북고남저(北高南低) 형의 기압배치에 의해 동풍계열이며 하계에는 남서풍~남동풍계열의 탁월풍을 이룬다(북제주군, 2000: 129). 조천리 또한 제주도 북부지역에서 나타나는 계절별 탁월풍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해안가에 위치하여 겨울철 북서풍의 영향이 심한 편이다.

제주도는 현무암에서 조면암까지의 마그마 진화과정을 1회(回)의 화산활동을 통해 볼 때, 약 100만 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크게 4회의 화산활동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이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열점에서 반복된 화산활동의 분출물이 사방으로 흘러나가면서 섬의 면적과 높이가 더해지며 오늘날의 지형을 이루게 되었다.

화산활동의 제1기는 약 120만 년 이전부터 70만 년 전까지이며, 주로 수성 화산분화로 만들어진 현무암질 용회암이 수중에 쌓여 기저(基底) 현무암이 형성되었다. 제2기는 약 70만 년 전부터 약 40만 년 전까지로, 화산분출물이 해수면 위까지 쌓이게 되면서 섬은 바다 위

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 때 분출된 용암은 표선리를 포함한 해안 저지대를 비롯하여 제주도 장축선상의 동부와 서부에 넓게 분포하였다. 제3기는 약 40만 년 전부터 약 16만 년 전까지이며, 마그마의 분화중심이 섬의 중앙부로 옮기면서 한라산체가 점점 높아졌고, 이 때 분출된 용암은 제주도의 북부를 더욱 넓혀가는 과정에서 제주도 면적도 한층 더 넓어지게 되었다. 제4기는 12만 5천 년 전부터 약 2만 5천 년 전까지로서, 섬의 장축 방향에 주로 분포하는 많은 단성화산을 통해 엄청난 양의 현무암질 용암류가 분출한 후, 250여개 이상의 오름이 형성된 시기이기도 하다(윤성효·이문원·진명식·안웅산, 2010: 32-35).

이상과 같이 조천리와 주변지역이 지표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시기는 제2기의 표선리현무암이 분출되면서이다. 조천읍 산간지대에는 제3기에 분출한 한라산현무암이 분포하고 있으며, 조천리와 같은 해안지대는 대부분 제4기에 소규모 화산활동과 함께 형성되었다(제주도·한국자원연구소, 1998: 11,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11: 29). 1998년에 제주도와 한국자원연구소가 발행한 제주·애월도폭 지질보고서 내 지질도에 의하면 조천리 지질을 구성하는 암석은 신안동현무암, 신촌리현무암, 신흥리현무암, 대흘리현무암, 와흘리현무암이 혼재되어 있다. 조천리는 암반이 많고 토심이 깊지 못하여 집중강우 시에는 저지대로 물이 침수되면서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기도 한다. 조천리는 제주의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한라산 방향으로 갈수록 지형이 높아지면서도 오름과 같은 높은 지형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기도 하다.

제주도의 토양은 보통 화산회토와 비화산회토로 구분할 수 있다. 화산회토는 화산활동으로 생성된 다양한 화산쇄설물과 부석, 화산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화산회토는 현무암 풍화토이다. 이 두 토양은 토색으로 보면 화산회토는 농암갈색토, 갈색삼림토, 흑색토와 비화산토는 암갈색토(현무암 풍화토)로 재분류할 수 있다. 농암갈색토는 서귀포시·남원읍·안덕면·표선면 등 해발 100~600m에 많이 분포하고, 갈색삼림토는 한라산에 주로 분포 분포하며, 흑색토는 표선·성산 등 동부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또한 암갈색토는 북부와 북서부에 분포하고 있다(안중기, 2006: 18-20). 토양에 따른 농업생산력은 암갈색토—농암갈색—흑색—갈색삼림토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정광중, 2012: 395).

조천리의 토양은 대부분 암갈색토가 분포하고 있으며, 1:25,000 지형도를 살펴보면 마을주민들은 주로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마늘과 콩, 깨 등의 밭농사를, 1132호 일주도로 남쪽으로부터는(해발 15~30m이상) 대부분 감귤농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들은 겨울철 해풍의 피해로 인해 감귤농사를 비교적 해발고도가 높은 내륙지역에서 짓고 있다.

3. 용천수 분포 현황

조천리는 제주도에서 용천수가 가장 많은 마을이다. 조천리 용천수는 41개이며 이는 조천읍 내 83개의 용천수 중 약 50%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한경면 내에 분포하는 용천수와 같은 수준이다. 이처럼 제주의 용천수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1988년 상수도 보급이 완비되기 전까지만 해도 마을주민들에게는 식수와 빨래 및 목욕용 물로 자주 애용되었다. 더불어 조천리의 많은 용천수는 과거부터 조천리 인구부양력의 한 요인으로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와 <표 2>는 조천리 용천수의 위치와 분포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조천리의 용천수들은 조천포구와 포구 남서쪽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용천수의 분포는 결국 취락이 밀집된 배경과도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조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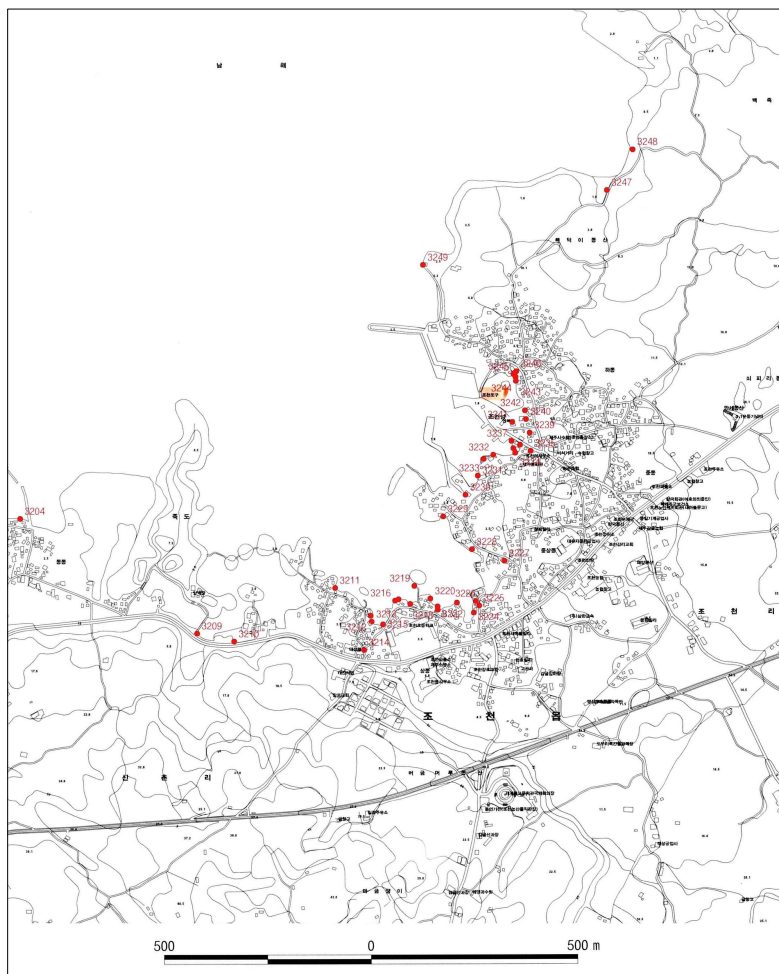
리의 거의 모든 용천수는 해발고도 5m 이하의 조간대에 분포하고 있어 해수의 움직임에 따라 주민들이 용천수 사용시간은 제한되었다.

용천수의 평균 용출량은 1일 2,000m³ 이상이 6곳, 1,000~2,000m³가 4곳, 1,000m³ 미만이 20곳이고,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용천수도 11곳이나 된다. 또한 보존 상태는 27곳이 양호한 상태로 조사되어 있지만, 1999년 조사 자료이기 때문에 현지점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최근 현장에서 살펴본 많은 용천수들이 돌레에 돌담을 쌓아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천리 용천수의 용도를 보면 생활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현

지조사 결과 과거에 비해 주민들이 용천수를 사용하는 빈도는 현저히 떨어져 있으며, 큰물 등의 몇몇 용천수만이 여름철에 남성들을 중심으로 목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¹⁾.

조천리에 많은 용천수가 분포하고 있음은 과거 용천수를 자주 사용하던 시절에는 용천수마다 집중되던 주민들이 수가 다른 마을에 비해 비교적 분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용천수를 통한 조천리의 자연환경은 과거로부터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조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조천리 용천수(●) 위치 현황
자료: 제주도, 1999, 『제주의 물, 용천수』, p. 241.

4. 마을형성과 변천과정

조천리 마을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으나 오창명(2007)은 조천리에 조천관(朝天館)이 있어 ‘조천관마을(朝天館里)’이라 하다가 후에 ‘조천마을(朝天里)’로 바뀐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천관은 문헌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탐라지』에는 고려 공민왕 23

1) 2012년 11월 19일 조천리사무소 사무장과의 인터뷰 내용임.

〈표 2〉 조천리의 용천수 분포 현황

연번	용천수명	표고 (m)	평균용출량 (m ³ /일)	보존상태	용도	이용시설
1	광지동산물	0.5	24	양호	수산용	보호시설
2	켓물	1.3	760	양호	수산용	보호시설
3	절간물	0.4	1,212	양호	생활용	집수/보호시설
4	수룩물(1)	0.6	1,847	양호	생활용	집수/보호시설
5	수룩물(2)	1.3	1,170	양호	생활용	집수/보호시설
6	서낭당물	4.3	자료 없음	위치멸실	고갈/멸실	고갈/멸실
7	앞빌레물	1.1	2,722	양호	생활용	보호시설
8	억물(1)	0.0	2,371	양호	생활용	집수/보호시설
9	억물(2)	0.0	3,477	양호	생활용	집수/보호시설
10	억물(3)	0.0	5,570	양호	생활용	집수/보호시설
11	제주자리물	0.0	888	양호	생활용	집수/보호시설
12	가마귀물	0.0	200	양호	미이용	보호시설
13	새물	0.0	자료 없음	위치멸실	고갈/멸실	고갈/멸실
14	말물	0.3	300	양호	미이용	집수/보호시설
15	두말치물	0.0	150	양호	미이용	집수/보호시설
16	되물	0.4	2	양호	생활용	집수/보호시설
17	고두물	0.3	자료 없음	위치멸실	고갈/멸실	고갈/멸실
18	솔박물	0.3	자료 없음	위치멸실	고갈/멸실	고갈/멸실
19	저녁물	2.4	자료 없음	위치멸실	고갈/멸실	고갈/멸실
20	풍풍물	0.4	50	양호	미이용	없음
21	남자목욕탕(1)	1.1	300	양호	생활용	집수/보호시설
22	억물(4)	1.5	2,860	양호	미이용	집수/보호시설
23	도릿물	0.4	44	양호	생활용	집수/보호시설
24	절간물(1)	0.8	460	양호	생활용	집수/보호시설
25	절간물(2)	0.1	5	수량부족	생활용	집수/보호시설
26	두말치물	3.0	640	양호	생활용	집수/보호시설
27	진물	4.0	자료 없음	위치멸실	고갈/멸실	고갈/멸실
28	생이물	2.7	자료 없음	위치멸실	고갈/멸실	고갈/멸실
29	장수물	1.6	400	양호	미이용	집수/보호시설
30	남자목욕탕(2)	2.0	2	수량부족	미이용	보호시설
31	정중당물	2.7	자료 없음	위치멸실	고갈/멸실	고갈/멸실
32	구시물	2.3	자료 없음	위치멸실	고갈/멸실	고갈/멸실
33	무명	0.8	5	양호	생활용	집수/보호시설
34	도릿물	1.0	자료 없음	위치멸실	고갈/멸실	고갈/멸실
35	생이물	0.7	150	양호	생활용	없음
36	빌레물	1.1	100	양호	생활용	보호시설
37	작은돈지물	1.1	1,000	양호	생활용	집수/보호시설
38	큰물	1.1	2,961	양호	생활용	집수/보호시설
39	하리비개물	0.7	600	양호	미이용	없음
40	이들물	2.0	300	양호	미이용	없음
41	새코지물	0.0	자료 없음	위치멸실	고갈/멸실	고갈/멸실

주: 1999년 조사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제주도, 1999, 『제주의 물, 용천수』, pp.136-140.

년(1374)에 절제사 이옥(李沃)과 조선 선조 32년(1509)에 목사 성윤문 등이 여러 번 중수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또한 『세종실록』(21년)에도 조천관을 확인할 수 있고, 『중종실록』(5

년)과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에는 조천관포(朝天館浦: 조천관개), 「탐라지도」에서는 조천관리(朝天館里), 「제주지도」와 『제주군읍지』 「제주지도」 등에서는 조천리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조천관이 방호소와 수전소로 이용되었고, 『탐라지』에는 조천에 과원이 있었으며, 『탐라지초본』에는 조천연대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오창명, 2007: 323-224). 이러한 기록들로 보아 조천관은 늦어도 14C 초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조천리가 조천관의 존재와 연결시켜본다면, 마을의 형성 시기는 적어도 14C 이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옛 조천리의 일부가 신흥리로 분리되고 나머지 지역은 조천리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2012년 현재 조천리는 상동, 중상동, 중동, 하동, 신안동, 봉소동, 양천동 등 7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다(오창명, 2007: 325-326). 본동(本洞)에는 상동, 중상동, 중동, 하동이 속해 있는데, 1:25,000 지형도를 살펴보면 4개의 자연마을(본동)은 모두 해발고도 20m 미만 지구이면서 동시에 1132호 지방도(일주도로) 북쪽 해안가 가까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신안동, 양천동, 봉소동은 해발고도 50~70m 사이에 자리 잡고 있으며 각각 남서, 정남, 남동방향에 위치하고 있다. 더불어 신안동, 양천동 및 봉소동 주변에는 주로 감귤 과수원이 집중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조천리 주민들은 과거 신촌리와 함덕리를 연결하는 1132호 지방도가 개설된 이후에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조천리는 그저 지나쳐 지나가는 곳으로만 인식하게 되면서 마을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최근 조천리에서는 마을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며 노력을 쏟고 있다.

5. 인구변화의 실태와 특징

조천리는 인구는 2012년 11월 현재 5,110명으로 남자는 2,532명, 여자는 2,578명으로 성비는 100:102로 확인된다. 2011년을 기준으로 할 때, 조천리의 인구는 조천읍 인구의 24.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조천읍 중에서 함덕리(29.2%) 다음으로 많은 인구수이다. 함덕리와 조천리의 인구수는 제주도 전체 읍면지역의 마을(리)에서도 1, 2순위를 차지할 정도로 농어촌 지역의 마을 중에서는 많은 인구를 자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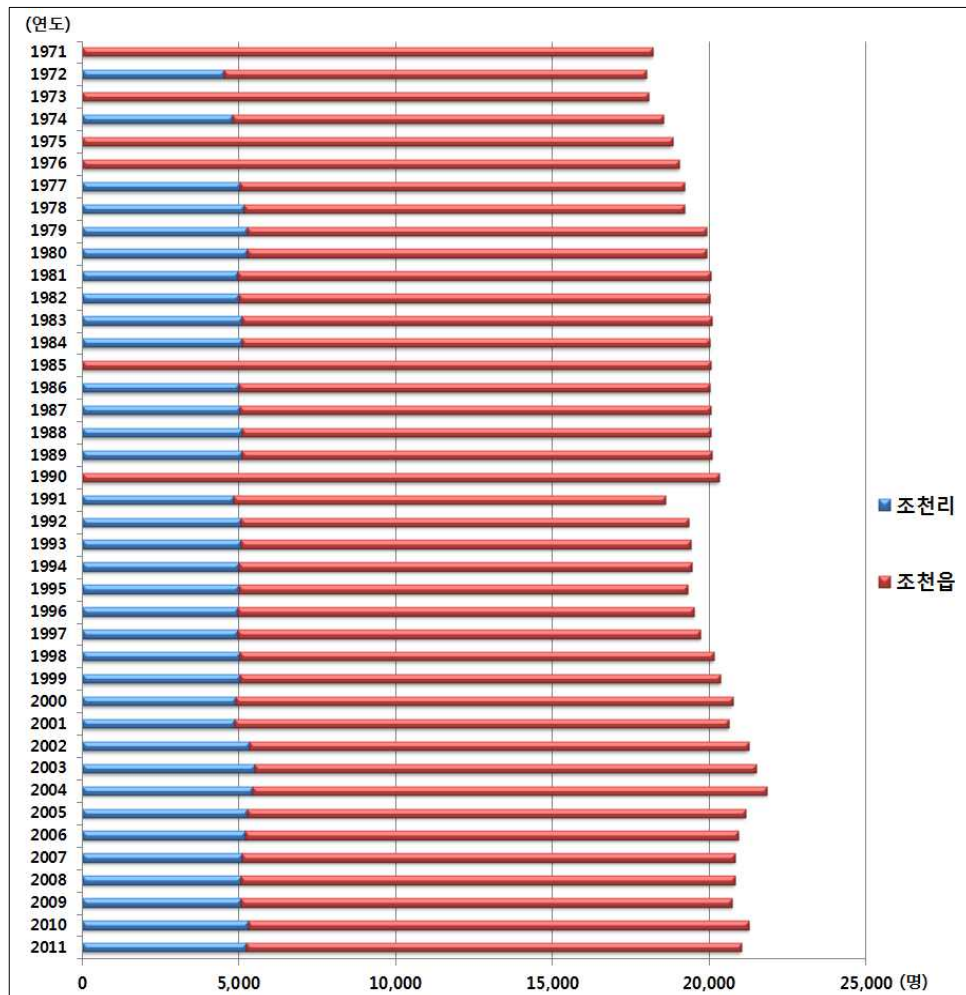
조선시대 조천리의 인구는 『제주읍지』와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總冊)』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정조 때 발행된 『제주읍지』(제주읍지, 방리, 좌면)에 보면 ‘조천마을’ 민호는 168호, 남자는 492명, 여자는 535명으로 나타난다. 또 1904년에 발행된 『삼군호구가간총책』(제주군, 좌면)에서는 조천의 연가가 580호, 인구는 남자 748명과 여자 823명을 합하여 1,571명으로 기록되어 나타난다.

두 문헌의 기록으로 볼 때, 조천리는 200여 년 전부터 1,000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는 인구규모가 큰 마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과거에서부터 조천리에 많은 인구가 분포하게 된 배경에는 용천수가 풍부한 자연환경과 함께 제주목과의 근거리에 위치한다는 점, 그리고 화북과 함께 조선시대 이래 제주도와 한반도를 연결하는 2대 관포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그림 3〉은 1971년 이후부터 2011년까지 조천리와 조천읍의 인구를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조천리의 인구는 1972년도부터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198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1981년부터 2001년까지는 5,000명 선에서 증가와 감소를 거듭하고 있다. 2002년에는 인

구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전년도에 비해 464명이 증가한 5,322명이 되었고 2003년에는 5,489명이라는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2012년까지는 아주 낮은 수치로 증감을 이어가는 상황에 있다. 그러나 조천리의 인구는 최근 10여 년간 평균적으로 5,000명 이상을 유지하면서 농어촌 지역에서는 상당히 인구수가 많은 마을로 부각되고 있다.

조천읍 인구는 1981년 20,000명을 돌파한 이후, 19,000~22,000명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조천리의 인구도 전체적으로는 조천읍의 인구변화에 따라 증가와 감소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3〉 조천리와 조천읍 인구 현황(1971~2011)

주: 조천리는 1971, 1973, 1975, 1976, 1985, 1990년도 통계 결여

자료: 북제주군, 통계연보(1971~2003),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구통계 보고서(2004~2011)

6. 인문자원의 구성과 특징

조천리는 제주를 대표하는 다양한 인문(마을) 자원을 보유한 마을이다. 우선 조천리에는 조천포구를 기점으로 하여 연북정(戀北亭)과 비석거리가 있다. 또한 조천은 과거로부터 제주

방어의 요충지인 증표로서 조천진성(朝天鎭城)과 조천연대(朝天烟臺)가 있으며,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의 거점장소였던 만세동산과 함께 제주항일기념관이 들어서 있다. 이 외에도 조천리의 인문자원으로는 새룻당과 새당, 용천수인 큰물을 비롯한 많은 용천수가 있으며, 또한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황씨종손가옥도 있다(그림 4).

연북정은 원래 조천진 밖에 건립된 객사(客舍)였으나 조천진성 안으로 이전하여 건립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객사의 기능을 담당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연북정은 관덕정(觀德亭)과 함께 조선시대 제주도에 건립된 정자식 건물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1971년 8월부터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조천비석거리는 조선시대에 부임하거나 이임했던 목사와 판관 등의 공적이나 석별을 기리는 비를 모아 놓은 곳으로, 포구로 이어지는 진입로 도로변에 조선시대 목민관을 지낸 관리들의 비석 7개와 더불어 마을발전을 위해 힘쓴 몇몇 주민들의 기념비가 함께 세워져 있다. 현재 조천비석거리에 있는 몇몇 비석들은 해풍에 의해 풍화되어 비문이 많이 훼손돼 있는 상태이다.

조천리는 조선시대 관문포구의 기능을 담당하던 조천포가 있어 자연스럽게 한반도로부터 유배인이 왕래하던 마을이기도 했다. 따라서 조선시대 유배문화의 흔적도 함께 볼 수 있는 마을이라 할 수 있다. 조천포로 들어온 대표적인 유배인은 북한 김춘택과 면암 최익현이 있고, 조천리에 적거했던 유배인으로는 남강 이승훈이 있다(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11: 579-589). 연북정에서 남쪽방향으로 약 5분 거리에 시멘트를 바른 돌담집이 있는데, 이 집이 바로 이승훈 적거 터이다. 이 집 벽에는 이승훈이 적거했다는 내력이 적힌 초록 동판이 벽에 걸려있어 과거의 흔적을 알 수 있다.

조천리에는 조선시대 때 쌓은 9진성 중 하나인 조천진성이 있다. 조천진은 조선초기부터 조천방호소와 수전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던 방어의 요충지였다. 조천진성은 3면이 바다와 접한 해발 1~2m의 완만한 경사면에 자리 잡고 있으며, 9개의 진성 중에서는 규모가 가장 작은 진성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진성의 규모는 외벽 높이가 2.2~4.3m, 상부 폭은 1.6~3.1m 이고, 둘레는 128m 정도이다. 조선시대에 성 안에는 조천관, 군기고 등 5동의 건물이 있었으나, 현재 연북정만이 존재할 뿐 다른 건물의 위치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11: 124).

조천연대는 조천진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200여m 북동쪽인 속칭 ‘연대동산’에 위치해 있다. 조천연대는 제주도 기념물 제23-5호로 지정되어 있다. 조천연대는 조천진에 소속된 연대로서, 서쪽으로는 별도연대, 동쪽으로는 왜포연대와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제주특별자치도·제주문화예술재단, 2009: 351).

제주항일기념관은 1996년 3월 1일 77주년 3·1절에 착공하여 1997년 8월 15일 광복 제52주년을 맞아 개관하였다. 이곳에 기념관이 세워진 이유는 1919년에 3월 21일에 조천리 미밋동산에서 있었던 만세시위운동을 시작으로 제주의 항일운동이 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이다(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11: 252).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과 관련하여 조천리는 제주의 그 어느 지역보다 항일정신을 잘 간직한 마을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다. 오늘날에도 제주의 3.1절 기념행사는 매년 조천만세동산 애국선열추모탑 주변에서 열리고 있다.

황씨종손가옥은 제주도 민속자료 제4-5호로 지정(1978. 11. 14)되어 있는데, 지정 당시에는 강창희 가옥으로 불리다가 2009년 7월 29일 조천리 황씨종손가옥으로 바뀌었다. 이 가옥은 19세기 후반에 지어진 제주의 전통와가(瓦家)로 1910년에 중수(重修)하였다(제주특별자치

이상과 같이 조천리 인문자원의 특징은 대부분 본동을 중심으로 조천-신흥 해안도로를 따라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조천비석거리를 중심으로 대부분 반경 500m 안에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조천리는 이처럼 인문(마을)자원의 밀집도가 높은 점은 교육적 측면이나 관광자원적 측면에서 최고의 장유도하려면 도보 및 자전거(2009: 96-104). 최근 만세레 코스와 인문(마을)자원으로 여겨진다.



자원적 측면에서 최고의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인문(마을) 자원들을 이용하여 관광객을 유도하려면 도보 및 자전거로 볼 수 있게 하는 코스 개발이 절실하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96-104). 최근 만세동산을 중심으로 울레 18코스와 울레 19코스가 개장되었다. 이 울레 코스와 인문(마을) 자원을 잘 연결한다면 마을발전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7. 종교시설 현황

〈그림 4〉는 조천리의 주요 종교시설을 나타낸 분포도이며 〈표 3〉은 주요 종교시설 현황을 정리한 자료이다. 조천리에는 불교사찰이 3곳, 개신교회가 4곳 그리고 천주교조천성당이 있으며 이외에도 신흥종교로서 여호와의 증인, 한국 SGI, 수운교, 일관도 등이 들어서 있다. 이처럼 하나의 마을에 여러 종교가 분포하는 것을 전제하면, 한마디로 조천리는 제주종교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주요 3대 종교에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 3〉 조천리의 주요 종교시설 현황

종교시설		소속종단/교단	설립년도	주지/담임목회자
불교 사찰	고관사	조계종	1930	여공(如空)
	불사리탑사	조계종	1987	도림(道林)
	양진사	조계종	1921	선법(善法)
개신 교회	조천교회	예장통합	1909	송○훈 목사
	갈릴리교회	오순절	1996	이○용 목사
	조천감리교회	감리회	1951	고○섭 목사
	제주영어교회	독립교회	2008	김○ 목사
천주교	천주교 조천성당	?	1999	최○철 신부

자료: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11, 『조천읍 역사문화지』, pp.605-623.

먼저 불교사찰을 살펴보면 과거 조천리에는 조천관 포구에 입지했다가 후에 이전한 관음사가 있다. 현재는 고관사, 불사리탑사, 양진사가 있는데 모두 조계종 소속 종단으로 양진사(1921년)—고관사(1930년)—불사리탑사(1987년) 순으로 설립되었다. 양진사와 고관사는 취락이 집중된 본동 지구에 있으며, 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불사리탑사는 1132호 지방도로 변에 위치하여 이 도로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눈에 띄는 경관적 요소가 되고 있다. 이 외에도 양천동에는 약사암이 있다.

개신교로는 조천교회, 조천감리교회, 갈릴리교회, 제주영어교회가 있는데 소속교단은 다양하며 조천교회(1909)—조천감리교회(1951)—갈릴리교회(1996)—제주영어교회(2008) 순으로 설립되었다. 조천교회는 상동에, 조천감리교회는 중상동에, 갈릴리교회는 신안동에, 제주영어교회는 지방도 제1118호선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천주교조천성당은 1956년 조천 공소를 설립하여 이어져오다가 1999년에 조천본당으로 승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천주교조천성당은 신촌리의 경계지점과 가까운 상동지구에 위치해 있다.

조천리는 전체 종교시설이 10개가 넘게 존재하는 마을이다. 이처럼 많은 종교시설이 하나의 마을에 들어서게 된 배경은 주민들이 새로 들어오는 종교에 대해 대체로 관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말하자면 과거 조선시대부터 조천포로 인해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성향이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을 가지게 된 것으로 여겨

진다. 결과적으로 조천리에는 조천포를 통해 다양한 종교인들이 제주로 입도한 후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천주교와 개신교는 최근에 이르러서야 주민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11: 622).

8. 조천진성과 연북정의 역사지리적 측면의 평가

조천진성은 조선시대 제주에 입지한 3읍성 9진성 중 하나이다. 진성(鎭城)은 기본적으로 특정지역의 방어를 위해 설치된 군 주둔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어느 지역에서든 외부로부터 적군이나 타국의 배들이 쉽게 접근하거나 상륙하여 특정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강탈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조천진성은 제주읍성에서 동쪽으로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화북진성과 함께 동부지역의 중요한 방어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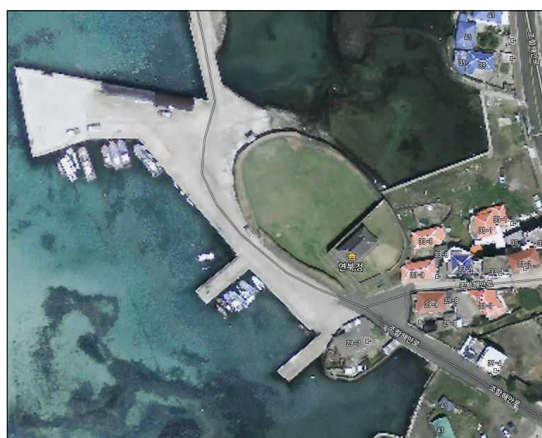
조천진성의 중요한 역할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당시 주요 관문포구의 기능을 담당하는 조천포구와 주변 마을을 사수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주읍성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읍성을 방어하기 위한 중추적 역할이다. 이러한 두 가지 중요한 역할에서 조천진성의 입지적 특성이 드러난다. 조천포구는 조선시대 내내 화북포구와 더불어 2대 관문포구로서 관선(官船)을 통한 육지부와와의 교류는 물론이고, 관리와 유배인의 입출도(入出島) 그리고 상업에 위한 서민들의 교역 등에도 끊임없이 활용되었다.

조천진성은 역사지리적 측면에서 볼 때 크게 입지적 특성과 기능적 특성에서 평가할 수 있다. 조천진성은 <그림 5>와 <그림 6>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조천포구와 바로 인접한 해안가에 입지해 있는데, 해발고도로는 1~2m이고 전체적으로는 완만한 경사지이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진성 자체의 지형은 남고북저(南高北低)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김명철, 2000: 33). 북쪽은 바다와 인접하면서 모든 관선이나 일반 어선과 상선들의 입출입 통제는 물론이고 만약에 있을 왜구의 침입이나 이양선의 내도 등을 대비하여 많은 군졸들이 항상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조천진성은 제주도내의 다른 진성과 비교하면 비교적 작은 진성에 속하지만, 위치적 중요성에 근거하여 일찍이 조선 초기부터 방어의 요충지로서 설치되었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그림 5> 조천진성과 그 주변 위성사진
자료: daum



<그림 6> 조천진성과 연북정 확대 모습
자료: naver

입지적 특성에서 주어지는 제주읍성의 방어와 관포(官浦)로서의 기능유지 등과 관련된 특별한 임무는 다른 진성과는 크게 차별화되고 있었다(그림 7).

한편 연북정은 조천진성 내에 건립된 건물 중의 하나로 원래는 진성 밖에 위치하던 객사로 알려져 있으며, 최초 건립연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제주문화예술재단, 2009: 210)(그림 8). 조천진성 안에다 다시 정자 건물 형태로 건립한 것은 1590년(선조 23)으로 알려져 있고 당시의 명칭은 ‘쌍벽정(雙壁亭)’이었다. 청산(靑山)인 한라산과 녹수(綠水)인 주변바다가 함께 어우러져 쌍벽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지만, 1599년(선조 32)에 건물을 보수하면서 ‘연북정(戀北亭)’으로 바뀌었다(제주특별자치도·제주문화예술재단, 2010: 46).



<그림 7> 조천진성



<그림 8> 연북정

연북정이 지니는 역사지리적 의미와 가치는 세 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 하나는 연북정이 제주도내에서는 조선시대의 여러 건물들 중 관덕정과 함께 매우 드문 정자 형태의 건물이라는 점이다(그림 7). 이점은 건축학적으로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연북정은 규모에 있어 관덕정보다는 작은 정자 건물이지만, 쓰임새는 매우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연북정은 정자 형태의 건물이지만, 제주도의 전통 주거 양식인 초가집의 칸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건물이다. 연북정은 조천진성 안으로 들어서면서 정자 형태의 건물을 갖추게 되었다고 전하지만, 정확한 이전 이유나 당시의 세부적인 건물구조는 사실상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조천진성 안으로 재차 이전 건립되면서부터 정자 건물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한다면, 시간적으로는 400년이 넘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지금의 연북정은 1973년에 복원된 것이지만, 원형 건물의 시간적 해석은 다소 다른 차원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확인되는 연북정은 정면 3칸, 측면 2칸 구조로 돼 있고, 바닥은 마루를 깔고 있다. 단지 지붕의 형태는 팔작지붕으로 육지부의 건물에 많이 나타나는 양식인 동시에 조선시대 관아건물에서 많이 취하는 양식이다.

세 번째로는 연북정이 심적(心的)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지방과 중앙, 즉 제주와 한양 사이를 연결하는 상징적 건물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제주에 있는 신하(경우에 따라서는 유배인)가 한양에 있는 임금과 심적으로 소통하고 싶은 갈망과 소원을 표현하는 장소로서, 또 국운(國運)의 성대와 임금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상징적 공간으로서 연북정은 중요한 의미를 띤다고 말할 수 있다. 연북정은 제주라는 절해고도의 땅에 있지만, 거기서 기원하는 소원과 염원은 한양을 향한 암묵의 메시지로써, 말하자면 연북정은 소원과 염원을 생산하는

신성한 공간이라는 사실이다. 오늘날 연복정에 올라서서 그러한 기분을 느낄 수는 없지만,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더불어 제주라는 지리적 환경을 고려하면 상당히 의미 있고 신성한 공간이었음에 틀림없다.

이상과 같이, 조천진성과 연복정은 역사지리적 측면에서 입지적 특성과 기능적 특성을 토대로 나름대로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조천진성이나 연복정은 단순히 문화재라는 차원을 떠나 현세대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역사자원이자 문화자원이다. 따라서 현세대의 입장에서는 조천진성과 연복정을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관광자원으로 혹은 교육자원으로 활용할 것인가라는 시대적 사명이 남아 있다.

〈참고문헌〉

- 김명철, 2000, ‘조선시대 제주도 관방시설의 연구—읍성·진성과 봉수·연대를 중심으로—’, 제 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북제주군, 1971-2003, 『통계연보』, 북제주군.
- 북제주군, 2000, 『북제주군지 (상)』, 북제주군.
- 안중기, 2006, “제주도의 강수량과 토양” (『한라산의 하천』),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 오창명, 2007, 『제주도 마을 이름의 종합적 연구 I—행정명사·제주시편—』, 제주대학교출판부.
- 윤성효·이문원·진명식·안웅산, 2010, 『제주도 지질공원』, (사)제주화산연구소.
- 정광중, 2012, “기후와 토양” (『2012 제주 WCC 생태·문화탐방 해설서 STORIES OF JEJU 세제의 보물섬 제주 이야기』),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 pp.389-397.
- 제주도, 1999, 『제주의 물, 용천수』, 제주도.
- 제주도·한국자원연구소, 1998, 『제주·애월도폭 지질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제주문화예술재단, 2011, 『문화유적분포지도(1:5,000) -중보 제주시-』, 제주시·제주문화예술재단.
- 제주특별자치도, 2005-2011, 『주민등록인구통계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제주문화예술재단, 2009, 『화산섬, 제주문화재탐방』, 제주특별자치도·제주문화예술재단.
- 제주특별자치도·제주문화예술재단, 2010, 『마을따라 유적따라』 (제주기행 길라잡이), 제주특별자치도·제주문화예술재단.
-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11, 『조천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제주특별자치도 조천읍 지역발전 10개년 계획』, 조천읍지역발전계획수립추진협의회.